

서울~지리산 성삼재 버스 인가 반발 확산

전남도, 국토부 등에 재검토 요구...구례군의회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국토교통부의 서울-지리산 성삼재 간 고속버스 노선 허가(광주일보 7월14일자 7면)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전남도가 국토부와 경남도에 재검토를 촉구했고, 구례군의회는 철회 결의안을 채택했다.

19일 전남도와 구례군의회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1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버스노선 인가와 군민의 지리산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국토부와 경남도에 해당 노선의 허가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가 허가한 노선은 서울-함양-인월-마천-백무동을 1일 6회 운행하던 기존 노선 중 1회를 서울-함양-인월-성삼재로 경로를 변경해 연장 운행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노선 변경 신청을 접수한 경남도는 관계법령에 따라 경유지 시·도와 협의를 진행했다.

전남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운행구간을 연장할 경우 운행횟수를 일일 3회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노선은 일일 1회만 운행하기 때문에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업무처리요령에는 사업계획 변경 시 업체 간 과다경쟁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성삼재로 구례군 농어촌 좌석버스도 운행 중이다. 성삼재휴게소는 매년 50만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어 국립공원 탐방객의 교통편의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상태다.

이후 경남도는 국토부에 노선 조정을 신청했고, 전남도는 국토부에 재차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국토부가 경남도 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서울-지리산 성삼재 노선이 신설됐다.

그동안 전남도와 구례군은 지리산의 환경오염을



구례군의회는 서울~지리산 성삼재 고속버스 노선 인가 철회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 국토부 등에 전달했다.

막고 산악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5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에만 군내버스를 운행하도록 제한했다. 또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오랜 기간 주장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환경보전 정서에도 배치되는 등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구례군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에서 서울~지리산 성삼재 고속버스 노선 인가 철회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구례군의회는 "국토부의 결정은 구례군이 추구하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정책과 상반되며 지방의 정책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안전, 지리산의 환경, 지방분권 정책 모두를 등한시해 구례군민 모두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구례군의회는 "매년 50만대의 차량이 성삼재 도로를 따라 지리산을 오르면서 환경 훼손과 야생동물 로드킬은 물론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안전보다는 편의를 중시하는 개발 위주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고속버스 노선 인가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안전과 지리산의 환경을 보호하는 교통수단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구례군의회는 버스 노선 인가 철회와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촉구하는 입장을 국토부와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기자 노트

구례군의회 3명 제명...책임은 누구



이진택 제2사회부 부국장

구례군의회는 의원이 7명뿐인 초미니 기초의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명이었고, 2명은 무소속이었다. 또 6명은 지역구이며 1명은 민주당 여성 비례대표다. 2명은 초선이며, 나머지 5명은 재선 이상이다.

민주당 의원들만 의기투합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의회다.

그런데 지난 15일 구례군의회 민주당 의원 3명이 소속 정당에서 제명되는 구례군의회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유는 의장단 선거였다. 민주당 중앙당은 의장단 선출과정에서의 발생하는 각종 혼탁과 잡음을 줄이고자 당내 사전경선을 통해 의장단을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구례군의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당내 경선에서 의장후보로 정한 지역구 재선의원인 이승욱 의원을 낙선시키고, 초선인 유시문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당내 경선일은 6월29일이었고 의회에서는 다음날인 6월30일에 의장 선거를 치렀다. 하루만에 자기들이 정한 경선 결과를 바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의장 선거에서 떨어진 이승욱 의원이 구례군수의 개입설을 들고 나와 군수실을 향한방문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고 A도 전 의장의 개입과 함께 금품수수설 등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

반란의 의장 선거는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의 제명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배반의 정치라고도 한다.

제명된 3명의 의원은 의장에 선출된 유 의원과 부의장으로 선출된 박정남 의원은, 광역의원을 지낸 정정섭 의원이다.

초선인 유 의장은 민주당 공천으로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박 부의장은 민주당 비례대표 여성의원이다. 정 의원은 기초의원·광역의원·구례군수 출마까지 한 민주당 중진 지방정치인이다. 모두가 민주당 소속이다.

호남에서는 민주당의 공천만 따면 당선이 확정된다고들 하는데 이들 3명이 무슨 이유로 당 정계하는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당내 경선을 뒤집었을까? 많은 의문점을 자아내게 한다.

군민은 의장이 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을 쓰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구도라고 한다. 여기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엇일까하는 의문과 궁금증이 든다. 그러나 아직까지 누구 하나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침묵만 지키고 있다.

의원은 군민이 믿고 뽑은 일꾼이며 공직자다. 의장과 부의장은 더 많은 짐을 짊어진 공복이다.

침묵의 시간이 능사가 아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해명과 함께 공식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또 구례군의회도, 민주당에서도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군민이 말없이 지켜보고 있다. 자기들만의 명예와 영달을 위해 구례군민에게 수치심을 안기지 말아야 한다.

/lit@kwangju.co.kr

순천 동천 출렁다리 불법 하도급 '말뼉'

재하청업체 공사대금 미수 민원으로 드러나...시의회 감사 촉구

순천 동천에 건설 중인 출렁다리 공사가 불법 하도급으로 말뼉이다.

19일 순천시의회와 순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순천만국가정원 인근의 동천 저류지와 풍덕동 산책로 사이에 길이 184m, 폭 1.5m 규모의 출렁다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공사에 참여한 업체 사이에 재하청이 이뤄져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순천시는 케이블 설치를 위한 강구조물 건설 공사를 위해 A업체와 6억900만원에 계약을 했다.

A업체는 B업체에 하청을 줬고, B업체는 다시 C업체에 재하청을 줬다.

이런 사실은 재하청을 받은 C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순천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순천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등을 불러 조사에 들어갔고 밀린 공사대금 2400만원을 원청업체가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다만, 하청업체가 재하청을 주는 불법 하도급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B와 C 업체 2곳을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순천시의회도 재하청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순천시에 자체 감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감사 결과를 본 뒤 내용이 부족하면 시의회 차원

의 행정사무 조사권 발동도 검토하기로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감사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른 공문이 접수되면 감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하청에 재하청이 이뤄진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인 만큼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2016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봉화산에 출렁다리 건설을 추진했으며 12억원을 들여 184m 길이의 케이블을 제작했다.

시민단체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됐으나 허석 시장은 취임 이후 시민 여론과 선호도 등을 조사해 동천변에 출렁다리를 건립하기로 했다.

순천시는 출렁다리 건설을 위해 케이블을 재촬영하기로 하고 추가로 15억원을 들여 공사를 추진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고흥버스터미널, 산림조합 부지 편입 신축

용역 최종 보고... 도로 4차선 확장

고흥군이 교통 혼잡에 따른 불편이 만연한 버스터미널을 확장한다. 협소한 부지는 산림조합 부지를 편입해 넓히고, 주변 도로는 4차선으로 확장한다.

19일 고흥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군청 휴양홀에서 '고흥버스터미널 환경 개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사진>

보고회는 고흥버스터미널사업자, 운송업체 대표, 교통전문가와 주변 상가 대표, 터미널 인근 6개면 대표 등 '고흥버스터미널 환경 개선 민간협의회' 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용역 착수 보고회와 두 차례에 걸친 중간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리해 결과물을 도출했다.

이 용역은 지난해 10월14일부터 올해 7월18일까지 10개월간 진행됐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원진엔지니어링건축사는 과업수행 결과를 구체화하고 건축배치계획을 포함한 부분별 계획과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사업추



진 계획에 대해 공개했다.

앞서 2차 중간보고회에서 터미널 신축 위치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으며 현 부지와 신 부지의 장단점을 점검한 산림조합 편입 현 부지 신축으로 결정됐다.

현 부지 신축 문제점으로 지적된 주변 교통혼잡 문제는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또 택시 승하차장 확보를 통해서도 교통혼잡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